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예술
공원

Guide Book

극락정토를 꿈꾼 땅에 들어선

ART PARADISE

'안양(安養)'은 불교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극락정토의 세계를 뜻합니다. 한때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으로 몸살을 앓았던 안양은 2005년부터 시작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Art Paradise'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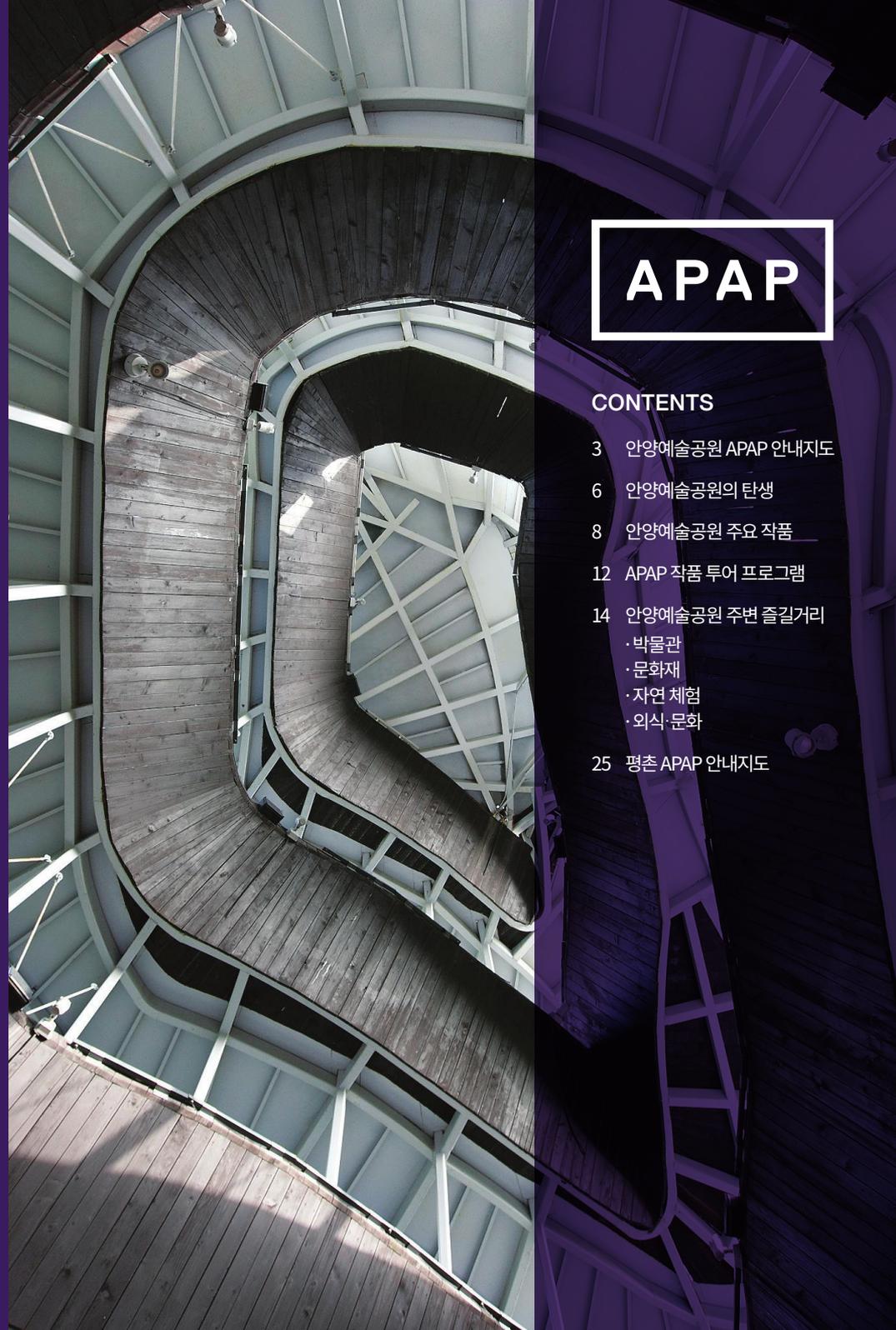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초대받은 국내외 작가들은 가장 먼저 안양을 보고 체험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양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고찰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작품구상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시선을 지닌 작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것. 둘째는 다른 작품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거리를 둘 것. 이 같은 원칙에 따라 2005년 1회 APAP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안양예술공원과 평촌 등 안양 시내 곳곳에 80여 점의 작품이 보석처럼 뿌려졌습니다.

APAP 작품지도 한 장만 손에 있으면 안양에서는 누구나 보물찾기를 하듯이 'Art Paradise'를 탐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길을 걷다가 불현듯 예술 작품을 만나는 일이 더 큰 기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이제 당신이 이토록 넓고 달콤한 예술의 품으로 들어와 말을 걸어주실 차례입니다.

APAP

CONTENTS

- 3 안양예술공원 APAP 안내지도
- 6 안양예술공원의 탄생
- 8 안양예술공원 주요 작품
- 12 APAP 작품 투어 프로그램
- 14 안양예술공원 주변 즐길거리
 - 박물관
 - 문화재
 - 자연 체험
 - 외식·문화
- 25 평촌 APAP 안내지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Anyang Public Art Project)는 3년마다 열리는 국내 하나뿐인 공공예술 트리엔날레입니다. 안양의 지형·문화·역사 등에서 영감을 얻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안양예술공원을 중심으로 안양시 곳곳에서 미술·조각·건축·영상·디자인·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 1 사라져가는 문자들의 정원
- 2 보물과 역사, 운명으로 통하는 입구, 다리 그리고 비법을 찾아 성스러운 광야를 헤매다.
- 3 안양 메모리타워
- 4 달-삭망월
- 5 1평 타워
- 6 신기루
- 7 안양 도로표지판 프로젝트 2005
- 8 스트리트 퍼니처
- 9 안양파빌리온(알바로시자홀)
- 10 무문관(無門關)
- 11 병커 M. 바흐친

- 12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 13 거기에/거기에서
- 14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
- 15 잔디 휴가 중
- 16 예술가의 정원
- 17 종이 뱀
- 18 각목분수
- 19 공동의 장, 예술의 유익함을 생각하는 예술위원회
- 20 웰컴 캐노피
- 21 그림자 호수
- 22 거울 미로
- 23 노래하는 벤치

- 24 중간자(안양)
- 25 안양상자집-사라진(탑)에 대한 헌정
- 26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자(창학)/복사집 팔레미(성은)
- 27 정령의 숲
- 28 용의 꼬리
- 29 전환점
- 30 전망대
- 31 리.볼.버.
- 32 숲속길
- 33 신중생물
- 34 동물들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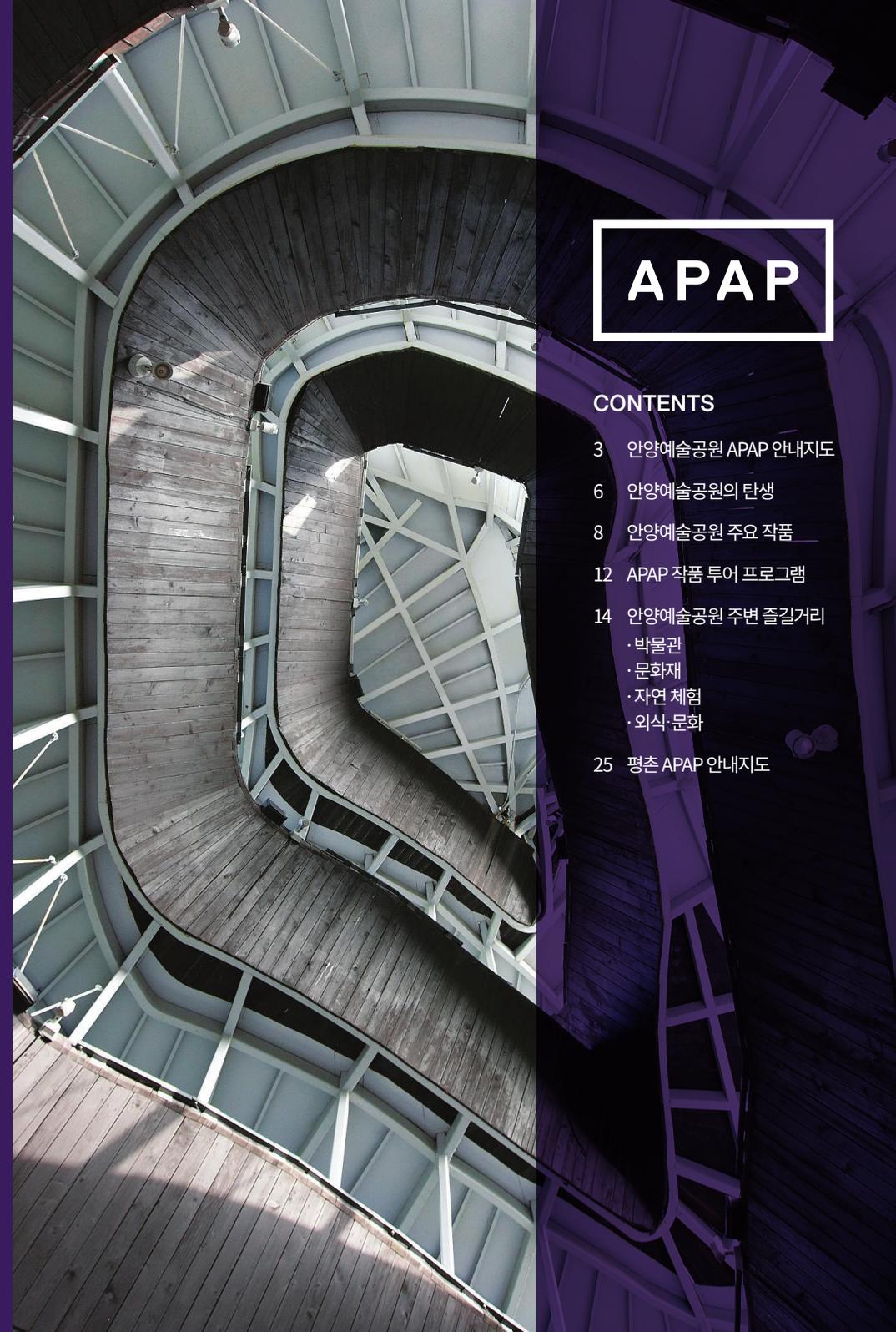
- 35 안양 사원
- 36 장소성/비장소성
- 37 발견
- 38 무제(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는)
- 39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 40 태양 에너지 타워
- 41 낮잠 데크
- 42 휴식
- 43 로맨스 정자
- 44 돌꽃
- 45 우리들의 안양
- 46 천국은 불타고 있다
- 47 뿌리

- 48 은하수
- 49 큐브
- 50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 51 돌지도 디자인
- 52 긴 다리
- 53 만고강산 유람할 제
- 54 일 퍼센트, 일백 퍼센트
- 55 4 원소 집(地, 火, 水, 風)
- 56 평은
- 57 신과 성신을 위한 의자
- 58 계란은 삶의 의미를 찾는 나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APAP

CONTENTS

- 3 안양예술공원 APAP 안내지도
- 6 안양예술공원의 탄생
- 8 안양예술공원 주요 작품
- 12 APAP 작품 투어 프로그램
- 14 안양예술공원 주변 즐길거리
 - 박물관
 - 문화재
 - 자연 체험
 - 외식·문화
- 25 평촌 APAP 안내지도





안양예술공원의 탄생



천연수 풀장에서 시끌벅적 유원지를 지나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예술의 천국으로

1930년대 삼성산 골짜기 천연수를 이용한 자연풀장 '안양풀이' 문을 연 이래로, 안양유원지는 오랫동안 서울 근교에서 인기 높은 휴양지였습니다. 1960년대 피서철에는 유원지 입구에 기차 임시 승강장이 설치됐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1970년대 기록을 보면, 여름철 휴일에는 자그마치 하루 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은 바로 이 즈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1969년 1월 21일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입구에 아치 모양의 구조물을 세우고 '안양유원지'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던 안양유원지가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1960년대 말 삼성천 상류에 대형 인공풀장들이 들어선 뒤부터였습니다. 행락객들이 마구 버린 오물들이 문제였습니다. 옆친 데 똥친 격으로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양유원지 일대는 건물 하나도 제대로 짓거나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977년 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발생한 대홍수였습니다. 이때 대홍수는 계곡의 경관을 참혹하게 파괴하고 지나갔습니다. 안양 풀장은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와 자갈, 바위로 휩쓸리고 메워지며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은 계곡물, 낡고 무질서한 시설물……,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안양유원지가 새롭게 태어난 계기는 2005년에 개최한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였습니다. 안양시는 APAP 사업을 통해 안양유원지를 단순한 휴식 공간의 차원을 넘어 자연과 사람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명소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때 삼성산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면서, 시민 공모를 통해 2006년 안양유원지는 '안양예술공원'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야외 조각과 건축물 등 58점의 작품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주요 작품

안양파빌리온(알바로 시자홀)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포르투갈), 2006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가 설계한 건축물로, 어느 각도에 서도 같은 형태로 읽혀지지 않는 독특한 공간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부 공간은 실내 설치작품과 공원도서관, APAP 작품투어 등 공공예술 전문센터로 운영되며 APAP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

오노레 도벨기에), 2005

삼성천 바위 위에 설치한 물고기 형태의 분수로, 전기모터를 이용해 물을 끌어올려 열네 개의 서로 다른 물줄기로 뿜어낸다. 분수가 놓인 두 개의 바위는 안양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1977년의 홍수 때 산에서 굴러내려 온 돌이다. 작가는 이 두 개의 바위와 홍수 피해 현장을 기록한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신문에서 이 작품의 영감을 떠올렸다.

각목분수

고승욱(한국), 2005

삼성천 옆에 자리한 작품으로, 분수처럼 뿜어 나온 각목 위에서 체조 선수가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1977년 안양 대홍수 이후 급조된 구조물로 자연환경을 망친 과거 사례를 떠올리게 하며, 자연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1평 타워

디디에르 파우자 파우스티노(프랑스), 2005

작가는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초대를 받고 오랫동안 한국 건축의 넓이 계량 단위였던 한 평에서 작품을 착안했다. 안양예술공원 입구 주차장에 자리한 <1평 타워>는 '한 평'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최소한의 대지 위에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은 단위 공간을 엇갈리게 쌓아 올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창을 냈다.

전망대

MVRDV(네덜란드), 2005

삼성산의 등고선을 연장해 산의 높이를 확장한 전망대로, 추상적인 데이터를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해온 건축가 그룹이 제작했다. 등고선 두 개로 윤곽을 결정한 전망대 길을 따라 오르면 안양예술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리볼버

허만 마이어 노이슈타트(독일),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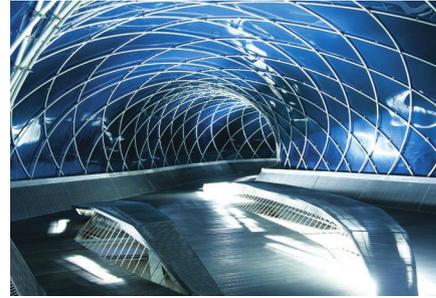
삼성산 중턱에 투명한 원통 구조물 두 개를 교차해 만든 쉼터. 이곳 바로 아래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건설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사용한 모래 운동장이 있었다. 작가는 이곳에 리볼버 권총을 추상화해 텅 빈 공간을 만들거자 했다.



중간자(안양)

마이클 주(미국), 2016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와 해시계를 떠올리게 하는 반구 형태의 작품. 해시계와 안테나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 정보를 전달하게 도와준 기술이다. 조각품의 일부인 커다란 동기둥은 피뢰침 역할을 하고 있다.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아콘치 스튜디오(미국), 2007

주차장과 야외공연장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산책로를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 '보기 싫은 주차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관람자의 동선을 주차장 위로 높임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았다. 튜브 형태의 기다란 통로가 주차장과 야외공연장을 연결해 준다.



거울 미로

에페 하인(덴마크), 2005

반짝이는 거울 기둥으로 이루어진 원형 미로. 기독교 문화에서 신성한 장소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상징하는 미로가 안양의 풍부한 불교문화와 결합을 시도한 작품이다. 백팔번뇌를 의미하는 거울 기둥들은 서로서로 빛을 반사하며 관람자를 미로의 중심으로 이끈다.



안양상자집-사라진(탑)에 대한 헌정

볼프강 빈터 & 베르트홀트 회르벨트(독일), 2005

음료 상자를 재활용해 만든 집으로, 불교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오래전 있었을지도 모르는 불탑을 현대적 소재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다섯 가지 색상의 음료 상자들을 쌓아 완만한 곡선의 벽면을 세웠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다음 내부 조명을 설치했다.

APAP 작품 투어 프로그램

APAP 작품에 담긴 예술가의 빛나는 상상력을 전문 도슨트 해설과 함께 만나보세요. 실내 공간에서 주로 운영되는 미술관의 일반적인 도슨트 프로그램과는 달리, 아름다운 숲과 하천, 일상생활 공간인 아파트 단지, 행정기관 앞마당과 같은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웃으로 자리한 APAP 작품을 전문 도슨트의 해설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아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일 3일 전까지 신청해 주세요.
www.ayac.or.kr

한낮 투어(90분)

3월~11월, 매주 화~일
화~금 11:00, 14:00 / 토~일 10:00, 14:00, 16:00
참가비 1,000원

달밤 투어(80분)

3월~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19:00(6~8월 20:00)
참가비 3,000원

영어해설 투어(80분)

3월~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13:00
참가비 1,000원

대상

누구나(초등학생 이하 보호자 동반 시 가능)
30명 정원(2인 이상부터 출발)

안양파빌리온(알바로시자홀)

APAP 작품 투어는 안양파빌리온에서 시작합니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
문의: 031-687-0548



안양예술공원 주변 즐길거리

안양예술공원 주변 명소와 함께
8개 코스로 이루어진
스탬프 투어를 떠나 보세요.

안양사 | 19p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 | 22p

남녀근석

예부터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숭배
했다고 전해지는 남녀석과
여근석



삼막사 | 1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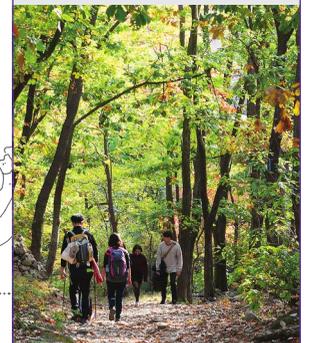
염불사 | 19p



서울대관악수목원 | 21p



관악산 둘레길 | 20p



삼막마을맛거리촌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우수 외식업 지구

만안교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용릉을
참배하러 가기 위해 1795년에
축조한 돌다리

스탬프 투어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파빌리온에서 스탬프 지도를 받아
8개소를 관람한 후 각 장소에 설치된
스탬프 테이블에서 도장을 찍으세요.
스탬프 지도를 완성한 방문객에게는
선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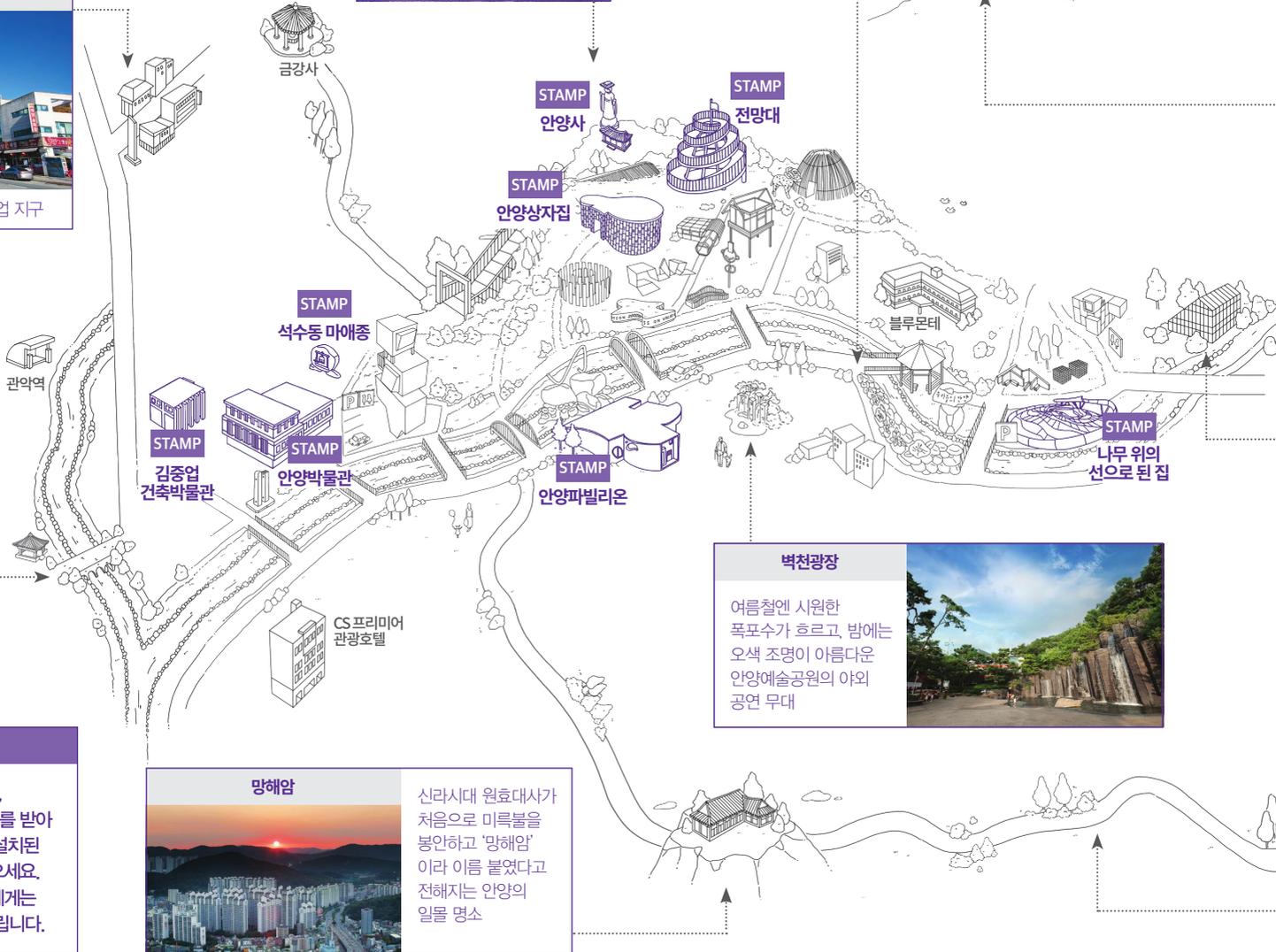
망해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처음으로 미륵불을
봉안하고 '망해암'
이라 이름 붙였다고
전해지는 안양의
일몰 명소

벽천광장

여름철엔 시원한
폭포수가 흐르고, 밤에는
오색 조명이 아름다운
안양예술공원의 야외
공연 무대





안양박물관

도시의 현재를 만드는 건 지금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역사다. 안양박물관은 '안양'이란 지명이 유래한 안양시지 경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상설 전시는 삶의 시작(선사시대-삼국시대), 안양의 기원(동일신라고려시대), 문화의 전승(조선시대), 도시의 성장(근현대)로 구성되어 안양의 시간을 걷고, 보고, 느낄 수 있다. 옥상에는 관악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 겸 카페 '더 테라스'가 자리하고 있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문의: 031-687-0909
 운영시간: 09:00~18:00(월요일, 명절 당일 휴관)
 이용료: 무료



김종업건축박물관

김종업은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를 사사한 한국 현대 건축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김종업건축박물관은 건축가 김종업이 1959년에 설계한 유류산업 안양공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기동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외부로 노출시켜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종업의 건축 스케치, 도면, 모형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건축 분야 기획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개최한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문의: 031-687-0909
 운영시간: 09:00~18:00(월요일, 명절 당일 휴관)
 이용료: 무료





석수동 마애종

안양예술공원을 돌아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 가운데 하나. 멀리서 보면 그저 커다란 바위 앞의 작은 조각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놀라운 조각품이 기다리고 있다. 달아놓은 종을 스님이 치고 있는 장면을 거대한 바위에 새긴 석수동 마애종은 그 묘사만으로도 놀랍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일한 마애종(암벽에 새긴 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뜻깊다. 조각기법이나 종류, 종신의 표현 등을 살펴보면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32



중초사지 당간지주·삼층석탑

당간지주는 불교용구인 당(일종의 깃발)을 세우는 깃대를 고정해주는 지주대를 말한다. 이곳을 중초사지라고 일컫는 까닭은 바로 이 당간지주 서쪽 지주에 새겨진 명문에서 비롯했다. 이곳에 있던 절이 '중초사'였으며, 그 시대는 통일신라시대임이 뚜렷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1963년 보물 제4호로 지정되었다. 옆에 있는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간지주와 80미터쯤 떨어진 채 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것을 1960년 공장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이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안양사

'안양'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궁금하다면 안양사를 찾아가야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금주(지금의 시흥)와 과주(지금의 과천) 등의 지역을 징벌하려고 삼성산을 지나다 산꼭대기에 오색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능정(能正)이란 스님을 만나 세운 사찰로 전해진다. 안양사의 명칭이 바로 이 절에서 유래했다. 10세기 초에 창건해 16세기까지 존재했던 안양사는 원래 지금의 중초사지 자리에 있었다. 현대에 들어와 삼성산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 옛 안양사를 기리는 형태로 재창건했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31번길 103



염불사

염불사의 창건은 삼성산의 전설과 연결되어 있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 의상, 율필 세 조사가 이 산에 들어와 원효대사는 삼막사를 창건하고, 의상대사가 연주암을 세웠으며, 율필거사가 염불사를 창건해 각각 그 절에서 수도생활을 했다고 한다. 삼성산 중턱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절의 건물들이 서로의 위계에 따라 각기 다른 높이에 위치해 있어서 각 건물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칠성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절터 가운데에 인자한 웃음으로 서 있는 미륵전 석상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없이 푸근하게 어루만진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245번길 150



삼막사

안양에는 안양사와는 또 다른 역사와 예술과 미학을 품고 있는 절이 있다. 1300여년 전 신라시대 문무왕 때 지어졌다는 삼막사다. 여기에는 삼막사 마애삼존불, 삼층석탑, 사적비 등 다양한 그 시대의 예술품을 만나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자연이 만든 2개의 자연암석인 남녀근석이다. 풍화된 두 개의 암석이 남녀의 성기 모양을 닮아 지어진 남녀근석을 만지면 출산과 번영, 무병과 장수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78



관악산 둘레길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산인 관악산을 순환할 수 있는 총 31.2km의 자연 탐방로. 안양시·과천시·서울시(관악구·금천구)를 아우르는 관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역사와 생태를 배울 수 있다. 안양시 구간은 석수역에서 시작해 금강사, 안양예술공원, 망해암, 비봉 산책길, 내비산 입구, 관악산 산림욕장, 간촌약수터를 지나 과천 구간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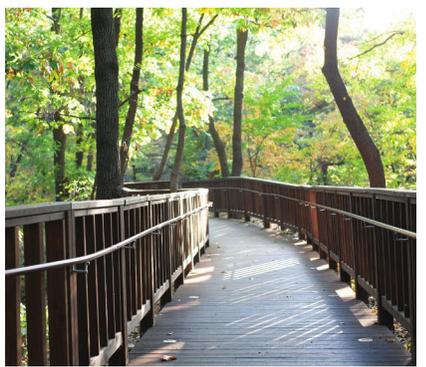
안양시 구간: 거리 10km, 약 4시간 소요



무장애 나눔길

2017년 가을에 조성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연 탐방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평평한 나무 데크로 이어져 있다. 점자 표시 손잡이, 전동휠체어 충전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꼼꼼히 갖추고 있다. 안양시 입구에서 출발해 중간중간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를 흠뻑 들이켜다 보면 어느새 관악산 둘레길과 만나게 된다.

구간: 안양시 입구부터 안양상자집까지 약 300m



서울대관악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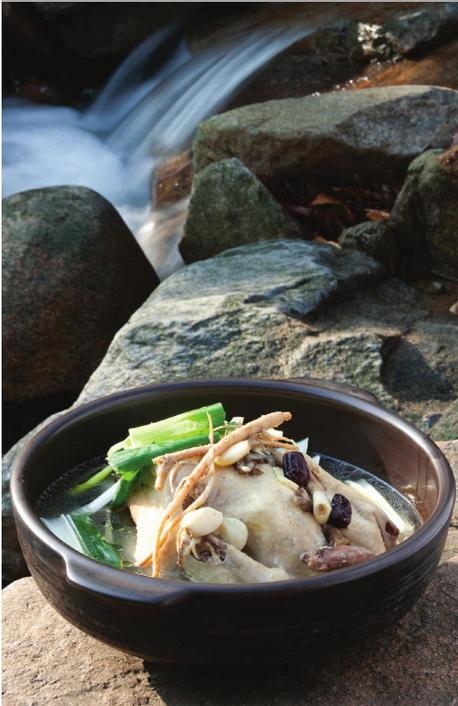
서울대관악수목원은 푸른 식물이 주는 '힐링'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다. 1051ha의 거대한 면적에 1천1백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관악수목원은 알지 못했던 식물을 찾아보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지만, 안양예술공원부터 이어지는 긴 산책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4월부터 10월까지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예약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주소: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80 문의: 031-473-0071



식당 & 카페

안양예술공원에 오면 눈은 물론 입도 호강한다. 맑은 숲과 계곡물 소리를 벗 삼아 멋진 식사와 차 한잔을 즐길 수 있다. 예술공원 진입로를 따라 조성된 음식문화거리는 토종닭백숙, 오리백숙, 보리밥, 열무국수, 빈대떡 등 맛깔난 한식과 양식, 중식, 일식 그리고 퓨전음식까지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음식점들로 가득하다. 2010년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로 지정받은 이후 '3無(無음식재사용, 無원산지허위 표시, 無위해 오스 사용)와 '3親(親환경, 親인간, 親건강)을 꾸준히 지켜오며 안양시민은 물론 관광객, 등산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삼성천 주변 곳곳에 저마다 독특한 개성으로 자리 잡은 카페를 둘러보는 것도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로스팅 커피의 훌륭한 맛과 수려한 전망은 기본. 여기에 로맨틱하거나 세련되거나, 고즈넉하거나 트렌디한 분위기는 덤이다.



갤러리 & 공방

거대한 야외 미술관인 안양예술공원은 예술과 한층 더 친해질 수 있는 실내 문화공간도 다양하다. 진귀한 중국 고대 도자기 유물과 갑골문자, 공룡알 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는 '갤러리카페 작은박물관', 국내 중견화가들의 개인전과 단체전이 수시로 열리는 '갤러리카페 수목원 가는길', 도예가 부부가 운영하며 직접 도자기를 굽고 판매도 하는 도자기 공방 겸 카페 '올토갤러리도자리카페'와 같은 문화 체험공간이 있다.

APAP의 또 다른 주요 무대

평촌

평촌은 1980년대 말 수도권 지역의 거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성한 안양시 평촌동, 비산동, 호계동 일대를 일컫는 지역명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한 넓은 도로망과 4만3천 세대를 수용하는 대규모 주거지역, 밀집된 상업지구, 도심속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2007년 2회 APAP에서는 평촌 지역의 도로변, 공원, 아파트 단지 곳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40여 점을 설치하여 도심 속의 열린 현대미술관을 시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특히 일상과 예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 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에 열린 3회 APAP에서는 '새 동네'라는 콘셉트를 내걸고, 유형의 조각품 대신 지역 공동체와 작가가 서로 소통함으로써 완성되는 무형의 공공예술에 주목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음악 연주회, 영화 상영, 토론과 연구 등 여러 형식의 공공예술을 선보였고, 다양한 시민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평촌 APAP 작품 관람 추천코스

평촌의 APAP 작품은 학운공원에서부터 평촌아트홀이 위치한 자유공원까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학운공원에서 출발하여 안양시청, 평촌중앙공원을 거쳐 자유공원에 도착하는 코스로 이동하면 더욱 편하게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학운공원(새 동네) → 안양시청 → 평촌중앙공원 → 자유공원(평촌아트홀)

내맘에 안양

'내맘에안양'은 2018년 개발된 안양시 관광브랜드로 각박한 도심 속에서 삶의 여유와 안락을 느낄 수 있도록 '휴(休)가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안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양시 관광 정보

안양 같이 놀자

- 네이버: blog.naver.com/anyangtrip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anyangtrip
- 페이스북: www.facebook.com/anyangtrip
- 트위터: twitter.com/anyangtri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031-687-0548(안양파빌리온)
www.apap.or.kr

안양박물관·김중업건축박물관

031-687-0909
www.ayac.or.kr/museum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031-8045-2473, 5122
www.anyang.go.kr

안양예술공원 오시는 길

대중교통

- ☞ 관악역(안양예술공원) 2번출구 →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방향 도보 이동
- ☞ 안양역 1번출구 →  마을버스 2번(예술공원행) 이용
- ☞ 법계역 8번출구 →  상가 방면으로 길 건너서 마을버스 2-1번 이용
- ※ 다른 지역 경유버스: 1, 5-2, 6-2, 6-3, 20, 51, 900, 5624, 5625, 5626, 5530, 5713번
- ※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버스 이용 시 관악역 하차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www.gbis.go.kr

승용차

경수산업도로(1번국도) 안양예술공원 사거리에서 안양예술공원입구 방향으로 진입

주차 안내

안양예술공원 입구 공영주차장 이용
최초 30분 500원, 초과 10분마다 200원

APAP의 또 다른 주요 무대

평촌

평촌은 1980년대 말 수도권 지역의 거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성한 안양시 평촌동, 비산동, 호계동 일대를 일컫는 지역명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한 넓은 도로망과 4만3천 세대를 수용하는 대규모 주거지역, 밀집된 상업지구, 도심속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2007년 2회 APAP에서는 평촌 지역의 도로변, 공원, 아파트 단지 곳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40여 점을 설치하여 도심 속의 열린 현대미술관을 시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특히 일상과 예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 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에 열린 3회 APAP에서는 '새 동네'라는 콘셉트를 내걸고, 유형의 조각품 대신 지역 공동체와 작가가 서로 소통함으로써 완성되는 무형의 공공예술에 주목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음악 연주회, 영화 상영, 토론과 연구 등 여러 형식의 공공예술을 선보였고, 다양한 시민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평촌 APAP 작품 관람 추천코스

평촌의 APAP 작품은 학운공원에서부터 평촌아트홀이 위치한 자유공원까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학운공원에서 출발하여 안양시청, 평촌중앙공원을 거쳐 자유공원에 도착하는 코스로 이동하면 더욱 편하게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학운공원(새 동네) - 안양시청 - 평촌중앙공원 - 자유공원(평촌아트홀)

1 **오픈 스쿨**
롯 텍(미국)



2 **오픈 파빌리온**
매스터디스(한국)



15 **시간의 파수꾼**
글로리아 프리드만(독일)



1 **오픈 스쿨**

2 **오픈 파빌리온**

3 **떠도는 섬들**

4 **살기 좋은 도시 안양, 산과 물, 평온과 조화를 이룬다. 희망과 밝은 미래가 여기에 있다.**

5 **달**

6 **키오스크**

7 **리즘**

8 **오색친란한 하늘 아래 산책길**

9 **도레미 스톨**

10 **형형색색의 바위들**

11 **자전거 스테이션**

12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나의 안양**

13 **도시 파노라마를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

14 **루가노 A-B**

15 **시간의 파수꾼**

16 **삼각형 미로-투 웨이 미러**

17 **무제 2007(티하우스)**

18 **에너지 박스**

19 **헌화(獻花)**

20 **루킹 타워**

21 **안양광장을 위한 사회적 구조물의 제안**

22 **무제**

23 **특별한-休**

24 **엔제로 프로젝트**

25 **헬로, 안양 워드 러브**

26 **쿠아트르**

27 **사라진 공깃돌을 찾아서**

28 **맥코믹/삭소**

16 **삼각형 미로-투 웨이 미러**
댄 그라험(미국)



17 **무제 2007(티하우스)**
리크리트 티라바니트(아르헨티나)



20 **루킹 타워**
게리 웹(영국)



25 **헬로, 안양 워드 러브**
야요이 쿠사마(일본)

